

총학생회 선거
서울 3개팀
수원 2개팀 출마

이번주부터 양캠퍼스 총학생회장 및 총학생회 선거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관련기사 9면)

지난 6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서울캠퍼스의 경우 총 3팀이 선거에 출마해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뤄질 것으로 보인다.

등록 순서에 따른 총학생회장 후보는 △정:김동일(회계91) 부:이준혁(한외94) △정:이경희(법학93) 부:장기영(법학96) △정:김봉석(경제95) 부:허인욱(의학94)이며, 총학생회장에는 이노경진(국문96), 오신희(지리96)가 단독으로 출마했다.

또한 수원캠퍼스는 총 2개팀이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했다. 후보자는 △정:홍전일(건축94) 부:윤용관(화학92) △정:김보섭(토목93) 부:한원성(임학95)으로 오는 12일부터 3일간 치뤄질 선거를 통해 총학생회장을 결정짓는다.

한편 지난주 투표를 마친 단과대별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문리대는 학생회장에 신용호(사학95)군, 부학생회장에 조영욱(수학95)양이 각각 선출되었고, 52.16%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선거를 마친 정경대는 단독출마한 여준호(신방96)군과 황수정(경제96)양이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에 각각 선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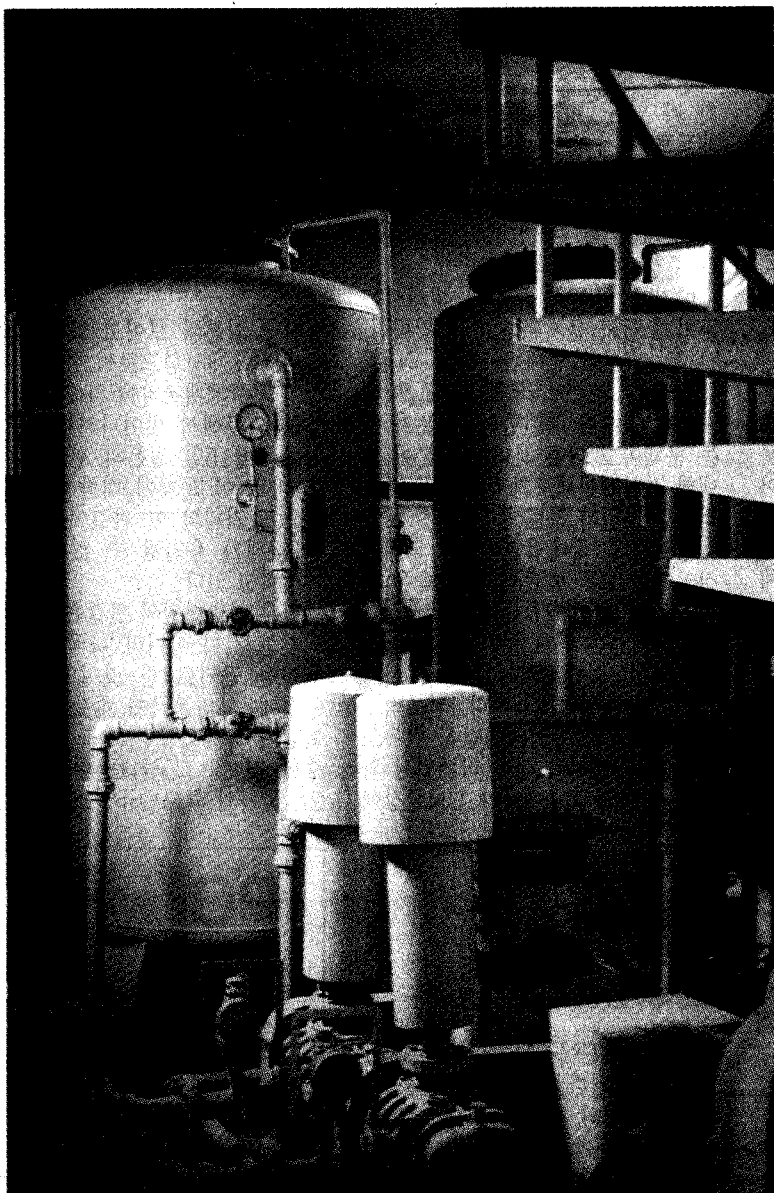
수원캠퍼스 단과대별 선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외대=정:김기욱(중문96) 부:장성희(영문97) △사과대=정:임재현(경영95) 부:박찬석(사회93) △자연대=정:조형근(환경93) 부:최광균(유전92) △공대=정:조한철(전자94) 부:김영국(산공91) △산업대=정:허완희(임학96) 부:유성호(생명97) △체과대=정:권순재(체육92) △취체부

수질개선 더이상 기다릴 시간 없다

수원 지하수 세균 기준치 넘어
낙후 폐수처리시설 교체 필요

학교는 학생에게 있어 집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구비된 시설이며 환경 또한 학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중 '물'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원이다. 이렇듯 우리에게 중요한 물, 하지만 학내의 수질현상은 그리 좋지 못하다.



찌는 듯한 여름, 한바탕 농구시합을 마치고 찾아가 별 의심없이 한모금 들이키게 되는 수도가 지하수에 세균이 득실거린다면...

지난 4월 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이 수원캠퍼스 지하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학내에서 사용중인 11개 지하수 중 6개 지하수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수소이온농도, 암모니아성 질소 등 44개 항목에 대해 실시된 이번 검사에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지하수는 1호정, 2호정, 4호정, 도서관, 자대 수도전, 자대 정수기의 물이며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 항목은 일반세균 관련 항목으로 물 1리터당 1백개 이하가 검출되어야 적합하나 자대수도전의 경우 9백90개, 자대정수기의 경우 1천 2백개나 검출되어 심각성을 드러냈다.

평소 물부족 사태를 자주 겪어야 했던 수원캠퍼스가 이와 같은 물문제를 거듭 겪는 첫번째 원인으로 캠퍼스 내 수도관 부재를 꼽을 수 있다.

한편, 우리학교가 배출하는 각종 폐수의 처리도 안심할만한 여건을 지니고 있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정경대 옆, 의약관, 가정대, 수원캠퍼스는 공대와 자연대에 폐수처리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처리장이 설치된지 17년이 넘은 1년간 유지관리 보수비로만 5백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시설은 환경부 허가업체나 폐액처리 용역업체에 위탁해야 하는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에

위탁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실험원액 폐수를 처리하려면 1톤당 27만 5천원을 위탁업체에 지불해야 하는데 서울캠퍼스만 연간 4톤을 실험원액 폐수로 방출하고 있으니 그 비용의 막대함은 짐작이 가능하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자 타 대학들은 점차 시설 교체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숭실대의 경우, 한 기체안에서 종합적인 폐액 처리를 할 수 있는 8천만원 상당 'KIST' 하이드로메트를 내년중 설치해 가동할 예정이며, 서울여대 역시 같은 종류의 기능을 하는 '란다 시스템'을 도입, 오는 11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서울여대 관리과 오경수씨는 "란다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좁은 장소에 처리장 설치가 가능하고 처리시간이 짧아 부식의 염려가 없어 보수공사비 및 유지비가 절감되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이 인간의 삶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만큼 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제 학교측은 학생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물공급을 위해 계획되어 있는 수원캠퍼스내 수도관 도입 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현재 사용하는 지하수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폐수처리를 하는데 있어 서도 첨단적인 시설을 도입해 안팎으로 믿음을 주는 '물관리'를 준비해야 할때이다.

〈강남이, 김용운 기자〉

한방임상연구센터 공대뒤 건립

정부·한의학 연구대학 공동사업

수원캠퍼스 애지원 맞은편 공대 뒤쪽 학교부지가 보건복지부산하 한국한의학연구소에서 계획중인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지로 최종결정됨에 따라 제3의료원 건립에 의한 한의학분야의 새로운 구심점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학육성과 발전을 위한 임상 실험연구시설 현대화를 통해 국민 보건의료증진 및 한의학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 건설되는 이번 연구센터는

타는 단기 10개년 계획에 의한 정부와 한의학 연구대학의 공동협력 관계사업이다.

총 1만2천평부지로 조성되는 연구센터는 학교측의 5천여평 부지 기증과 2백89억1천6백만원의 투자 재원 전액의 정부출연금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공사기간을 거쳐 2001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지하1, 지상5층)4천평, 실험동물 사육실(지상2층)1백평, 간호원 기

숙사등(지상2층)2백평, 한의학박물관(지상2층)2백평으로 총시설 연건평이 4천5백평이다.

이번 선정으로 학내외 우수한 연구인력 유치 및 확보가 가능할 것이며 국제적 연구, 인적교류 및 남북한 한의학 교류의 활성화, 동서의학을 통한 미래의 제3의학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10대 임원선거 19일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공동 입후보해야

노동조합은 오는 19일 제10대 임원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노조는 지난 3일 수원캠퍼스에서 임시대의원회를 개최, 규약 및 규정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제도를 개선하고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개정된 선거제도의 내용에 따르면 임원수를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하고, 입후보 방법에 있어서는 위원장 후보와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한조를 이루어 공동입후보 해야 하며 그외 부위원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은 당선된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같은 날 노조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구성하고 7명의 선관위원을 선출했는데, 선관위는 지난 5일 서울 노조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선거제반 일정과 준비사항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일정에 따라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오는 15일 오후 1시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경희 space



투표합시다!!

지난주 양캠퍼스는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로 분주했다. 총학생회에 대한 우려가 유난히 높았던 이번 학기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대표자가 될 후보들에게 생각이 담긴 한표를 던져 달 때이다.

지면안내

2 시 사
되풀이되는 한일해협 직선기선 논란

3 학 술
인문학의 부활을 꿈꾸며

5 사 회
되살아나는 3S정책을 비판한다

8 문 화
97 인디펜던트 록 페스티벌

9 선거특집
수원 총학생회장 후보 지상유세

10 인물포커스
교직원 사회봉사단 '나누리'

12 Free Style
대학인의 웃음기



경희 그 한주의 역사

1996.11.12 종합박물관 개관
1975.11.11 본교 주관으로 '제4차 세계대학총장회의'가 미국 보스턴에서 열렸다.
1984.11.14 '경희문화상' 제정
1986.11.11 국민윤리학과가 지금의 철학과로 개칭인가 되었다.
1991.11.15 각대학원 정원증원 및 학과신설, 명칭 변경
1996.11.14 국제전문인력양성특성화사업 국제대학원 선정

교내단신

모의 토의시합 오는 12일 오후 6시 취업정보실이 주최하는 '모의토의시합'이 치뤄질 예정이다.

선착순으로 20명에 한해 실시하는 이번 시합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오는 11일 오후 5시까지 취업정보실에 접수하면 되며 접수비는 무료이다.

시합장은 법대 301강의실이다.

오늘, 노사협의 서울캠퍼스 기능 2.3종의 정원 유지와 고용안정, 근무형태 변경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게 될 노사협의회가 오늘 오전 11시 개최된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노사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될 이번 회의에는 김종원 노조위원장을 비롯, 5명의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건강강좌 및 체력검사 체과대 체력관리센터는 경희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강좌'와 '기초체력검사'를 실시한다.

건강강좌는 국가대표 보디빌딩 선수의 시범으로 오는 18일 오후 5시 체과대 시청각실에서 열리며, 기초체력검사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체과대 농구장에서 실시된다.

이번 강좌 및 검사에 대한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체과대 체력관리센터에서 받는다.

수원캠퍼스 전화번호 변경

(관련기사 7면)

집을 지키는 주인처럼

교시탑

지난주 수원캠퍼스 대학종합평가가 마무리되었다. 수원캠퍼스 개교 이래 많은 변화와 도약들을 해왔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대학종합평가는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한 무대로서 작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도서관 조경공사, 교내 램프보수 등등 교내에서 이루어진 많은 변화들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문열람은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사이버파크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학생은 얼마 되지 않는다. 좋은 시설이 있다해도 학생들의 이용이 적다면 이는 없으리만 못하다. 이런 시설들을 유지, 보수하는 것 역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대중평 이후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달라진 캠퍼스, 좀더 나아진 환경을 어떠한 형식으로 운영하는가는 이용하는 구성원들의 손에 달렸다.

우리는 과거에 컴퓨터 도난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기억들을 지니고 있다. 이와같은 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좀더 나은 대학, 좋은 캠퍼스로 진입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측의 계속적인 학교 내 투자와 복지시설의 보충, 원활한 사후 관리 시행이 요구되는 주지의 사실이다. 학생회관의 엘리베이터 버튼이 처음부터 그렇게 망가져 있지 않았듯이 또 그런 사소한 훼손이 많은 이용자를 불편하게 만들며 자신도 피해를 보게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대중평을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학교가 되길 구성원 모두는 바라고있다. 그 결과와 취업과 입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학교의 명예,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측은 이번 대학종합평가를 계기로 좀더 나아진 환경을 계속적으로 유지 및 보수하기 위해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제 학교를 얼마나 좋은 곳으로 만드는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김윤택 기자)

수원 대중평 좋은 성적 예상

지난 6일부터 진행되어온 대학 교육협의회의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 관련한 현장실사가 7일 마무리되었다.

평가선 평가위원장과 7명의 평가위원(김수일, 김승일, 유준식, 서봉철, 정준수, 허기진, 권기욱교수)들은 도착 첫날 학내 곳곳을 둘러보며 시설들을 점검한후 각 영역별 실사를 시작했으며 실사 이틀째인 7일에는 오전중 영역별 실사를 마치고 오후 3시 강평회를 가졌다. 강평회에서 교육영역에 평가를 맡았던 김승일교수는 서울캠퍼스와 수원캠퍼스의 실질적인 차별화를 강조했고 사회봉사영역의 김수일교수는 학교나 교수들의 사회봉사영역은 우수하게 평가했으나 학생들의 봉사영역의 성과부족을 지적했다. 교수연구분야에 평가를 담당했던 유준



식교수는 우수전임교수확보부족을 문제로 지적하였으나 교수의 업적 평가부분이나 교수개발면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내렸으며 시설 및 설비영역의 서봉철교수는 학내시설에 대해 기준이상으로 평가했다. 재정,경영영역의 정준수 교수는 학교재정의 자립도가 나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건비 비율이 낮게 나타남을 밝혔다.

끝으로 평가선평가위원장은 총강평을 하며 수원캠퍼스의 전체적 평가상황이 양호함을 밝히고 학술연구영역에 있어서는 양적 질적 지원을 제안해 좋은 평가결과에 대한 기대를 갖게했다.

교수연구업적직 발간

수원캠퍼스 연구처는 교수의 연구의욕 고취와 대외적 연구업적진장을 위해 연구업적직을 발간하였다.

지난 6월 발행된 이번 업적직은 각 학과 교수들의 연구저작물, 국내외연구논문, 연구보고서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또한 연구처는 연구지원전제제를 통해 연구지원사항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수렴장구를 개설했다.

한편 서울캠퍼스 연구처가 기획한 논문집은 현재 제작 진행중이다.

밝은사회 선행 고등학생 표창

국제본부 총장상에 김은정양

지난 7일 서울캠퍼스에서는 밝은사회 연구소가 주최하는 '97 밝은사회 선행자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황병관 밝은사회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시상식은 경과보고, 조영원 총장 축사, 조영식 학원장 격려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상내역 및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제본부 총장상=김은정(영신여고 3) △한국본부 총장상=김은정(강일여고 2), 김주연(동안고 3), 전숙희(영광고 3), 정지윤(경희고 3), 고은영(경희고 3), 최길성(경희고 3), 조성호(경희고 3), 김윤주(비봉중고 3), 선현진(조선대학 부속고 3), 이정연(영신여고 3), 유미순(천안북치여고 3)